

도덕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해야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손 봉 호

I. 머리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교육에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교육에 매우 성공한 나라로 인식되는 것 같다. 외형적 성과를 고려하면 그것은 크게 틀린 평가라 할 수 없다. 수학, 과학 등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제경시대회에서 한국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경제 등 여러 분야의 큰 발전도 그런 평가를 자아낸다. 70년 전 한국은 개인 당 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고 천연자원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개인당 소득 2만 6천 불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고 원조 받던 나라가 2009년부터는 원조하는 나라의 지위를 얻었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영국 기자의 예측을 비웃기나 하듯 어엿한 민주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교육 덕택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교육의 성취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수했거나 교육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거의 전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 부모들만큼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는 없다. 마침 이런 교육열이 시대를 잘 만나서 그 빛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과거처럼 천연자원이나 영토가 중요했던 시절이었다면 뜨거운 교육열이 그렇게 큰 공헌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적 자원이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상한 오늘의 상황에서는 한국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라비아 속담에 “결혼이란 포위된 성과 같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가려 한다”란 것이 있다 한다. 우리 교육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외국인인 우리 교육을 매우 부러워하는데, 내국인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교육상황을 걱정하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평가가 엇갈리게 된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우선 외국인은 우

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잘 모른다. 통계숫자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우리 교육은 긍정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 교육이 그렇게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보면 문제 꺼리가 한 둘이 아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너무 만족하는 것은 개선과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도 강조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만과 비판은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 교육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지식교육’에 너무 치중해 왔다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은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이란 것에 의견이 모아져 있다. 그 비판은 정당하고 정확하며 추구해야 할 방향도 올바르게 제시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기발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안하기보다는 이미 상당할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목표에 대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따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룩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려 한다.

II. 경쟁적인 지식교육

지식교육에 치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결코 지식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늘 인류가 행사하는 엄청난 힘과 누리는 수많은 편익은 지식의 추구하고 교육이 없었더라면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우리가 지식교육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어진 것에 대한 경이(驚異)가 지식추구의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는 관조(uninteressierte Zuschauen)를 통해서야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지식획득 자체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지고의 이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역시 모든 인간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고통 같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지식추구도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다. 신비스러운 것, 모르는 것, 미래의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지식이란 예측하기 위함이다”(Savoir, c'est pour prévoir)라고 콩트(A. Comte)가 지적했다.

고대인에게 생존과 평화를 위협했던 것은 초자연적인 신이나 자연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지식추구와 교육은 신의 뜻, 자연의 이치를 앞으로 그것에 올바로 순응하기 위해서였다. 공자는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한다” 했거니와 하늘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하늘 혹은 자연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플라톤이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철학자만이 감각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이성으로 만물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그럴 때만 인간과 사회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운영될 수 있다고 믿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자연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은 신이나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추구되고 교육되었다. 17세기 영국인 베이컨(F. Bacon)의 “순응하지 않고는 정복할 수 없다”(Non nisi parendo vincitur)는 주장은 지식의 목적이 순응에서 정복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그 때는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 자연이었지만 과학이 더욱 발달됨에 따라 그 대상이 사회와 인간의 정신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자연계에서 이룩한 대단한 성취에 기고만장하게 된 자연과학은 연장(extrapolation)과 환원(reductionism)을 주저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조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이 대변하고 있는 현대 지식은 이제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돕는 ‘지혜’가 아니라 자연과 상황을 이용하고 바꾸는 ‘힘’이 된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라고 한 베이컨의 주장은 오늘날의 지식추구와 지식교육의 성격을 가장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

힘의 추구는 사람들과 공동체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지혜’에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을 정복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일으킨다. 특히 차세중심적 세계관(Diesseitigkeit)이 지배하는 한국문화에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삶의 의미로 추구되고 있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이 성공해서 유명하게 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지식추구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 어느 사회보다 더 뜨거운 것은 한국인이 자신을 올바로 알고 자연과 사회 환경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한 지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물론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쟁적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쟁심은 세계 어느 국민보다 더 강하다. 학교에서 70점을 받아도 1등 하는 것을 95점을 받고 3등 하는 것보다 선호할 정도로 한국인의 경쟁심은 비합리적으로 높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교육, 특히 선행학습은 이런 경쟁적 교육의 약점을 잘 반영한다. 선행학습은 새로운 지식을 더 확실히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험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어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이뤄진다. 학원에서 이미 배운 것을 정규 수업에서 반복하면 흥미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흥미를 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사의 정규수업은 활기가 있을 수 없다. 결국 공교육이 약화되고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지 못한 가난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자아낸다. 선행학습이 주가 된 사교육의 번창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하며, 심지어 저출산이란 재앙까지 몰고 온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III. 어렵게 된 창의교육

경쟁이 치열할 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fair play)이다. 축구경기에서 심판이 철저히 공정하면 강한 팀이 지고 약한 팀이 이기더라도 불평이 없다. 그러나 심판이 불공정하면 강한 팀이 이기고 약한 팀이 져도 불만이 생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뤄지는 지식교육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도덕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사람이 하는 평가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가 채점을 해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시험은 4지선다형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암기식 교육이 판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문화적인 상황은 이런 암기식 교육은 점점 소용없는 것으로만 들고 있다. 고성능의 전자식 기억장치가 많이 발명되어서 사람의 두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기에도 계산기가 달려 있어 이제는 99법 같은 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제는 단순히 지식의 양으로 승부를 가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창의교육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암기식 교육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창의성이 객관적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지선다형 출제만 허용하는 컴퓨터 채점으로는 결코 학생의 창의성을 식별해 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연구비만 많이 투자하면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처럼 교육이 지식의 창조나 획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육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신을 받는 분위기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한국인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란 사실도 이를 엿보게 한다. 세계관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강조한다 하여 창의성 교육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IV. 실패한 인성교육

그 동안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교육이 지식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해 왔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은 그런 비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지식수준에 비해서 도덕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도덕적 수준이 낮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지금 매우 불행하다. 우리의 생활만족도는 과거 세계 최빈국 수준에 머물렀을 때보다 더 낮다. 지난 해 미국의 퓨연구소(Pew Research Centre)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7점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물리적으로는 더 편리해졌으나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된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룩한 성과를 낮은 도덕적 수준이 무위로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불행하면 지식과 기술 수준이 높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민주화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늘에 필요한 인성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협조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았고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주로 자연환경이 결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개인의 행. 불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웅달샘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방해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수도물을 제대로 마시려면 수도국, 전기 회사, 발전소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법적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지 못하면 무수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오늘의 인간교육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인이 불행한 것은 자연환경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삶의 편의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한데 그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책임은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이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폐해가 눈에 뜨이도록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즉 교육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뤄지기 때문이고 객관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성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치로 측정되기가 어렵다. 수치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인성도 성적의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만약 인성의 수준이 수치로 나타나서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아마 교육부는 학부모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 보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이나 과학은 말과 글로 교육할 수 있으나 인간교육은 말과 글로 이뤄질 수 없다. 도덕성발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제시한 콜버그(L. Kohlberg)는 지능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 혹은 보편화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Universalizability)을 터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 했지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실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하면 국민의 교육수준이나 지식수준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Botswana)는 투명성이 30위로 우리의 46위보다 16위나 높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 위증과 무고가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지식수준이 일본에 비해서 수백 혹은 수천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합리성과 지식이 도덕적 행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도덕성을 담보할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니체(F. Nietzsche)가 지적한 것처럼 이성 은 창녀처럼 아무 목적이나 섬긴다. 이성과 지식은 선한 의지를 갖춘 사람에게만 도덕적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로 사람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교육이 수학이나 과학교육처럼 말과 글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착각해 왔다.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무리 윤리 수업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뤄져도 교육자가 윤리적 권위를 갖지 못하면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지난 2001년 유니세프 아세아 본부가 아태지역 17개국의 9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는 응답에서 한국이 13%로 17개국 중 최하였고, 17개국 평균 72%의 5분 1도 되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로 17개국 평균 2%의 열 배에 달했다 한다. 특히 교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하겠다. 백약이 무효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자들의 도덕성이 특히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고 그들의 도덕적 수준도 한국 사회 전반의 도덕적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교직을 성직으로 생각하는 교육자는 없고 대부분 자신을 지식만 전수하는 기능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이 학생들의 불신을 받는 것은 도덕적 수준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 한국 사회를 학생들 앞에서 대변하기 때문이다.

‘윤리’, ‘도덕’이란 용어는 서양어 ethics 혹은 morality의 번역이고 그것들은 각각 그리스어 ethos, 라틴어 mos에서 유래했다 한다. 그런데 ethos나 mos는 모두 ‘관습’, ‘전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다. 도덕성이란 공동체적이란 것을 암시한다. 요즘 ‘덕의 윤리’(ethics of

virtues)를 제창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있는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공동체의 윤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써도 인간교육은 어렵게 마련이다.

이렇게 낮은 도덕적 수준은 경제발전 자체도 방해하고 있다. 우리의 투명성이 일본수준만 되어도 우리 경제가 매년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 한다. 조금의 낭비도 경쟁력을 약화하는 심각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사회의 낮은 도덕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V. 도덕성을 갖춘 시민 양성

이런 상황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시한다. 인성교육, 특히 다른 사람과의 공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동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패하면 지식 교육 자체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이뤄져도 소용이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학문연구나 기술개발도 관계자들이 협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도 인간관계가 공정하고 조화롭지 못하면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이제는 도덕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우리 교육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랑의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꿈같은 소망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지식과 교육은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세계관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차세중심적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덕적 수준도 하루아침에 높일 수 없다. 지금 기성세대가 받고 있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

세계관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소수가 나서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적어도 한 두 개의 중요한 교육기관만이라도 학부모와 사회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대학교들이 학생의 창의성, 인성, 지도자적 자질 등을 주관적인 절대평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대학의 평가나 고등학교의 내신에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라도 개입된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파면, 투옥 등 엄청난 처벌

이 가해지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권리와 권위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법고시, 행정고시에는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만 이제까지 큰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독일의 고등학교 졸업자격 겸 대학입학 자격을 결정하는 아비투어(Abitur)란 국가시험은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치러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이 감독하며 심지어 그 교사들이 채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정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 서울대학교 입시라 하여 그런 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에 임하는 직원과 교수들이 제대로 된 자존심을 가지고 한국 교육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조만간 그 권위가 인정을 받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자들이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담당과목의 전문가가 되기 전에 기본적인 도덕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라와 자녀들의 미래를 제대로 생각하는 사회라면 기본적인 도덕성 정도는 교육자들과 교육계에 요구해야 할 것이고,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도덕적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인성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계와 언론계에 대해서도 그들의 교육적 책임을 요구하고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날카롭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비도덕적인 인물은 아무리 유능하고 유식해도 교육자도, 지도자도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우리와 우리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